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 전교의 달
제32권 45호(나해) 2012-10-7

[묵상]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새자들은 무슨 답을 원했을까?
그런 일이 옳지 않음을 그들도 알지만
종종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면죄부 주시길 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한 이 질문은
모세에게 때를 써서 얻어낸 율법인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를
예수님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할 수 없이 묵인한 인간의 법을
하느님의 법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되니
혼인을 통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원래 하느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저 웬수(?) 같은 인간이
정말 하느님이 맺어주신 게 짝이 맞나요?
그래서 또 다른 계명도 잊지 않고 주셨나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제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제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제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유봉순 안나
	(생)김인순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현호 요한 김종길 바오로, 박영준 안토니오, 유정현 헬레나, 고준희 제임스, 민소예 모니카
	(생)이윤조 글라라, 노천수 프란치스코 & 노영자 마리아, 서영관 안토니오 가정, 이재숙 데레사, 윤철 아오스딩 & 김금숙 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2,18-24

화답송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와 기쁨이 있음!○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2,9-1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복 음 마르코(Mark) 10,2-16<또는 10,2-12>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1	241	250
봉헌	361	270	310
성체	교백	304	289
파견	찬양하세	321	32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성경과 독서집

57). 말씀과 성찬 사이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하면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말씀의 봉사와 관련된 예식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독서집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요청했던 개혁은, 성경에 더욱 풍요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주일 미사에서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독서들과 신약의 독서들을 연결 지음으로써 “파스카 신비로 기념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약과 신약의 독서 사이의 연관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 어려움은 정경 해석에 비추어, 곧 성경 전체의 내적인 단일성에 비추어 고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기관들에서 독서집에 제시된 독서들 사이의 연결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보조 자료들을 간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독서들은 그날의 전례에 따라 정해진 대로 모두가 전례 집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다른 문제점들이나 어려움들은 경신성사성에 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라틴 전례에서 사용되는 현재의 독서집이 아직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고 있지 않은 교파들에서도 사용되고 존중되고 있음으로써 교회 일치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전례에서 사용되는 독서집 문제는 이와 다른데,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이 문제가 고유법을 따르는 교회들의 고유한 전통과 관행들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교회일치라는 맥락을 고려하면서 “유권적으로 검토”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독서자의 직무

58). 성찬례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이미, 하느님 말씀의 선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복음은 사제나 부제에 의하여 선포되고, 라틴 전통에서 제1독서와 제2독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임을 받은 독서자에 의하여 선포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교부들과 함께,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전례 거행에서 독서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히 라틴 전례에서 그 자체로서 평신도의 직무인 독서직을 준비하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계속>

부부생활의 법칙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결혼의 불가해소성, 즉 결혼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므로 인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차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47%로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통계의 허점이 있지만 아무튼 부부들의 이혼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먼저 본인의 불행이요, 그 자녀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온 가족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사회의 결집력 역시 무너뜨립니다. 이혼 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더욱이 '오죽하면 이혼하겠는가.'라고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이혼하는 이유는 아마도 '인내'와 '화해'와 '용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부부생활의 6가지 법칙"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1.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대접받고자 한다면 언제나 먼저 마음 쓰고 대접해야 합니다.
2. 실과 바늘의 법칙입니다. 부부란 실과 바늘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끊어지고 바늘이 너무 느리면 실은 엉키고 맙니다. 그렇다고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실과 바늘은 따로 놀게 됩니다. 더구나 실과 바늘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3. 수영의 법칙입니다. 땅에서 수영을 배워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통해 사랑의 이치를 깨우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차 미숙함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서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4. 타이어의 법칙입니다.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져 나오는 방법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일입니다. 부부가 갈등할 때 즉시 해야 할 일은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는 일입니다.

5. 김치의 법칙입니다. 배주는 다섯 번 이상 죽어야 김치가 됩니다. 땅에서 뽑힐 때,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소금에 절일 때,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에 버무려질 때, 그리고 입 안에서 씹힐 때, 그래서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 부부도 죽고 죽어야 합니다.

6. 고객의 법칙입니다.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낼 수 없습니다. 항상 미소로 맞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재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나의 마지막 고객이라 여기십시오. 거기에 부부 관계를 이어가는 해답이 있습니다.

사실 결혼생활은 끊임없이 서로를 재발견해나가는 과정, 서로 조율하고 양보하면서 적정 타협점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인내'와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코린13,4,7)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틸리안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송현식 바오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최보나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컬럼버스테이 연휴로 10월7일(오늘주일) 수업 없습니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의 수업이 오늘주일(7일) 없습니다.
 - 학생미사는 평소대로 9시30분에 영어미사로 봉헌합니다.
- ◆ 주일학교 백투스쿨 데이
 - 일정 : 10월14일 중등부(6~8학년), 10월21일 고등부(9~12학년)
 - 시간 : 주일학생미사 후 10시30분~11시30분(수업시간중)
 - 장소 : 각학년 교실
 -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 주일학교 Lock-In 한주일 연기
 - 일시 : 10월19/20일(금 오후 7:00~토 오전 11:00)
 - 대상 : 6~12학년
 - 장소 : 성당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목주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 '본당의날' 한국학교 기금마련 행사 보고
 - 수고해주신분들(학부모님들, 대진회, 청년회, 양业协会)과 참여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총수입 : \$2,837(음식판매 \$1,437 기부금 \$1,400)
 - 재료비 등 제외한 순수익 : \$2,128.65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남가주 소식

- ◆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95주년 기념행사 및 미사
 - 일시 : 10월13일(토) 오후 7시30분
 - 장소 : 성 바실 성당(본당 : 637 킹슬리 Dr. LA)
 - 미사집전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 주최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미주평의회
 - 문의 : 주배석 비오(818)571-8438
- ◆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10월15일(월) 오후 1시, 18일(목) 오후6시30분
 - 교육내용 : 커피 입문과 드립커피 이론 및 실기교육
 - 지도 : 최대제 신부
 - 수강료 : \$200
 - 신청 : 아그네스 성당 사무실 ☎(323)731-4433
- ◆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10월17일(수)~21일(주일)
 - 지도 : 배영길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50(독방) * 마감 10월10일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KCLC)
 - 장소 : 매리우드 피정센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하세실리아 (323)578-2230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배태임 안나 781-9199 10/13(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막달레나, 욱올리아 539-3377 10/13(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0/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989-0366 10/2(화) 오후 7시 반미사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10/23(화) 오후 7시 반미사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10/17(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임순 데레사 974-2857 10/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경수 헬레나 634-6923 10/11(수)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0/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0/13(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이병우 마리노 784-0585 10/9(화) 오후 7시 반미사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0/21(주일) 낮 12시 성당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0/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0/12(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김인숙 안젤라 617-3568 10/9(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제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힘을 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둑새벽에 일어나서서 무릎을 꿇고 목주기도를 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 이른 아침 미사도 참례하고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다녔습니다. 늘 제 머리맡에는 성경과 목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전격적으로 농구선수를 하면서 할머니와 떨어져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제 머리맡에는 변함없이 성경과 목주가 놓여 있었지만, 성당엔 다니지 않았습니다. 점차 제 마음은 하느님보다 다른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일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한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농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성당에 가자.” “교회에 가자.”라고 초대하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한테 사자를 믿으라고 해라.” 그때는 모든 것이 재хим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영화 “해바라기”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연출자와 제작진, 배우들과 가족처럼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마친 후 주인공의 아픔이 그대로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친구들과 치인들과 여행, 낚시, 운동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술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듯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한 채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심하게 침대 곁에 놓여 있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라’(잠언 20,1 참조)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성경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성경에 손을 올리고 전에 펼친 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에페 5,18)라는 구절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후 저는 성경을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어떤 날은 9시간 이상씩 오직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보와 전례 예식에 관련된 몇 부분을 제외하곤 하나같이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으로 다



아왔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 제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사물이 새롭게 보이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잊고 있던 할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과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제 주변에는 신앙이 깊은 친구와 지인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다가가기 전에 이미 그분은 저와 함께 계셨고 늘 저를 사랑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할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알게 모르게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미약하지만 제 기도도 누군가가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김래원 요셉 / 배우<서울대교구주보>

콜릭! 교리

삼종기도(Angelus)

해질 무렵 일손을 멈추고 겸손하게 저녁 기도를 바치는 농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밀레의 그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선 ‘만종(晩鐘)’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제목은 ‘삼종기도(Angelus)’입니다. 삼종(三鐘)은 종을 세 번 천다는 말입니다. 삼종기도는 하루 3번 일과를 멈추고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하는 매우 역사가 오래된 기도입니다. 저녁 삼종기도는 6시쯤 바칩니다. 밀레의 장면은 해가 저무는(晩: 저물 만) 그 시간에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Angelus(안젤루스)는 라틴어로 ‘천사’라는 의미인데, 삼종기도의 라틴어 기도문이 이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Angelus Domini nuntiavit Mariae, Et concepit de Spiritu Santo (안젤루스 도미니 눈시아빗 마리아에, 옛 콘체피트 데 스피리투 상토) 번역하면,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루카 1,28)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루카1,38)

마리아의 신앙고백인 이 피앗(Fiat: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형)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태동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의 가운데 계시나이다.”(요한 1,14) 비로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종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루카 1,26-37)를 기념하기 위하여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모송을 바칩니다. 삼종기도는 해를 무렵(하루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정오(잠시 쉬는 점심) 그리고 해질 무렵(하루 일을 바치는 저녁)에 바칩니다.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 구세주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 강생(降生)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서울대교구 독산1동성당 주임